

여수·광양산단 '공업용수 고갈 위기' 넘겼다

정부 공급관리 대책 긴급보고...최근 비로 주암댐·수어댐 수위 확보 환경부, 절수 대책 추진...김희재 국회의원 "중장기 대책 마련해달라"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공업용수 고갈 우려가 제기됐던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공업용수가 6월 이전까지는 공급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말에는 장마기에 접어들고, 해갈가능성이 높아 긴박한 위기는 넘길 것으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16일 "전날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여수·광양 국가산단 공

업용수 부족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환경부·행안부의 긴급 보고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심한 가뭄(200년 빈도)을 가정하더라도,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 및 수어댐은 최근 강우로 저수위 도달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암댐은 최근(9~10일·강우량 약 20mm) 내린 비로 6월 중 저수위 미도달이 예상되고, 수어댐은 지난 1월 강우(1월12일~15일·강우량 약 40mm)

로 현재 저수율이 풍부(예년 대비 155%)하다. 또 환경부는 목포시의 주암댐 공급구역을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을 애초 1일 2000톤에서 최대 1만6000톤으로 확대했다. 보성강댐 발전중단에 따른 발전손실은 소양강댐 수력발전소를 늘려 보충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가뭄에 대응해 공장정비시기 조정(하반기→상반기)을 추진하고, 올해 1월~6월 까지 공업용수 사용량을 하루 1만8000톤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 재이용 시설·해수담수화 시설 가동 확대, 냉각수 배출 최소화, 노후배관 교체 등으로 하루 약 3만톤을 절수하는 등의 수요절감 대

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공급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000만톤을 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까지의 이들 산단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환경부·행안부는 보고했다.

6월 말에는 장마기에 접어들며 해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 사태의 고비는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주요 산단의 가뭄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산단 공공폐수 재이용 시

설 등을 확충하여 산단 차원의 가뭄 대응수단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희재 의원은 "기후변화로 가뭄 위기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산단 공업용수 부족 문제는 단일 부처가 아닌 행안부, 환경부, 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희재 의원은 지난 2월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가뭄으로 인한 여수 국가산단의 가뭄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국회 토론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핵심 공공기관 유치해 지방화 시대 열어야" 전남도,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김영록 지사 "청년에 희망 줄 것"

"농·수협 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가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전남도는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지방화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협업·융합·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에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역설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필요성과 기회 발전특구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 시 꼭 지켜져야 할 7대 원칙과 전남도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조창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농협중앙회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 외에 대학·기업·연구소 등 폐까지 이전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지난 2018년부터 민·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농·수협 중앙회를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공을 들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 117명 선발 전년보다 334명 감소

광주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117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발 예정 인원은 2021년 795명, 지난해 451명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자치구 신규채용 인원 감소, 일부 직렬 퇴직 등 결원 감소 등이 작용했다. 상반기에 8~9급, 일반행정 등 15개 직렬 108명과 하반기에 7급, 연구·지도사 등 7개 직렬 9명을 채용한다. 직군별로는 행정 79명, 기술 35명, 연구·지도사 3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4명, 8급 2명, 9급 108명, 연구·지도사 3명이다.

광주시는 법정 의무 비율을 넘겨 장애인 9명(7.7%), 저소득층 3명(3.1%), 기술계 고졸자 2명(40%)을 선발하기로 했다.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일은 8~9급 6월 10일, 7급 등은 10월 28일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중소 유통업체에 구조개선자금 지원

운전자금 등 25억원 규모... 오늘부터 희망 업체 신청

광주시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다. 자금은 시설개선,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시장개발사업(건축·기반공사비 등) ▲공공장소 등 건립사업(조직화된 유통업체가 공동 창고 설치) ▲점포시설 개선사업(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개선 정비)이 해당된다.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시설개선 자금 2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1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지난해보다 한도액이 상향 조정(시설개선 1억~2억원, 운전자금 5000만~1억원)됐다.

대출금리는 연 2.12%(변동금리)이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를 추가 인하한다.

신청은 1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기금용자시스템(<http://14.48.175.12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시중 8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문화·첨단기술 접목 관광 콘텐츠 개발

11월까지 강진·담양 등 5곳에 체험형 실감콘텐츠 제작

전남도가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문화자원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진, 담양, 해남, 고흥, 영암 등 5개 지역에 29억원을 들여 정보통신 기술·관광·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7개 콘텐츠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역사 등 자원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실감 콘텐츠와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업이다.

강진에는 다산박물관과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 다산의 정원 미디어아트와 터널형 청자 소재 미디어아트를 개발하고, 담양에는 대나무박물관과

죽녹원에 대나무 관련 실감콘텐츠를 구축한다. 해남에는 중생대 디지털 수족관, 고흥에는 풍광과 명화를 주제로 실감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암엔 군민들의 이야기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영상으로 제작한다.

콘텐츠는 전남도와 시·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외부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거쳐 세부 콘텐츠 등을 결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를 확대해 관광객이 전남의 문화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즐기도록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곡성 기차마을 '장미나라의 달리는 열차' 가상현실(VR) 콘텐츠, 보성 한국차박물관 '보성 녹차밭의 사계' 미디어아트 등 6개 시군에 7개 콘텐츠를 제작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서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